

# 북한개발소식

2024 FEB

02

통권 220호

이달의 주제

2024년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제2화)

북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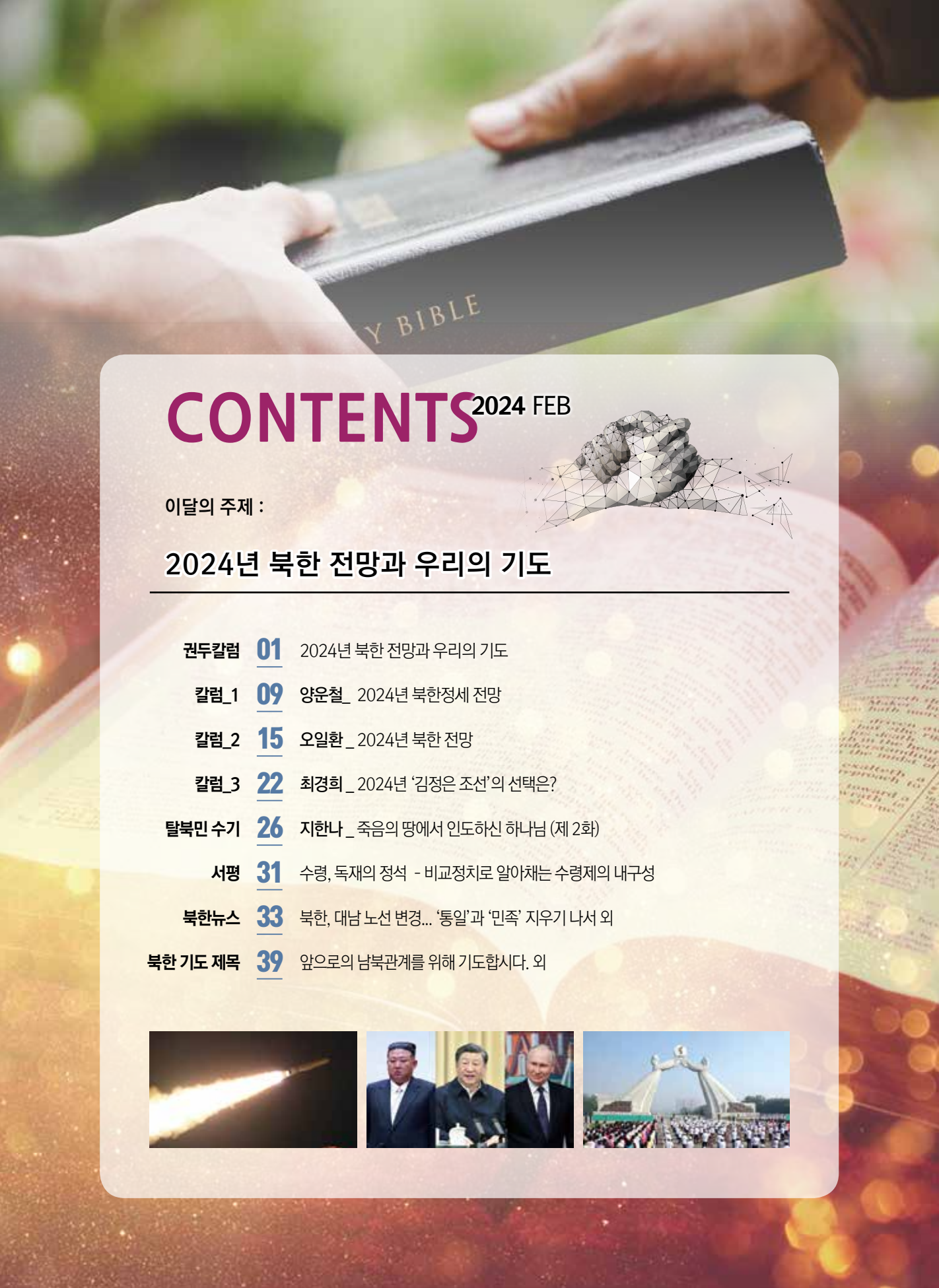
북한, 대남 노선 변경...  
'통일'과 '민족' 지우기 나서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CONTENTS 2024 FEB



이달의 주제 :

## 2024년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 권두칼럼 **01** 2024년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 칼럼\_1 **09** 양운철\_ 2024년 북한정세 전망
- 칼럼\_2 **15** 오일환\_ 2024년 북한 전망
- 칼럼\_3 **22** 최경희\_ 2024년 '김정은 조선'의 선택은?
- 탈북민 수기 **26** 지한나\_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제 2화)
- 서평 **31** 수령, 독재의 정석 - 비교정치로 알아채는 수령제의 내구성
- 북한뉴스 **33** 북한, 대남 노선 변경... '통일'과 '민족' 지우기 나서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권두칼럼

## 2024년 북한 전망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새로운 해를 맞으며 사람들은 지난 한 해의 좋지 않았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소망하곤 한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정세는 연초부터 희망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은 작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해당 회의의 결과발표에서 특별히 이목을 끈 점은 북한의 대남 노선의 방향전환이다. 남과 북을 기존의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의 상대로서가 아닌 별개의 두 국가 관계이며 교전국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통일전선부 등 대남사업부분의 기구들도 정리, 개편하기로 하였다. 1월 10일에는 김정은이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 "전쟁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러한 북한의 노선변화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한다.

2024년 시작부터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필요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노선 변화에 담긴 의미와 그 배경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

이번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과발표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남 노선의 변화를 비롯한 대외 정책 변화가 중요한 골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발표가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의 강경발언 수준을 넘어서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 온 대남 노선의 변화를 공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북한은 단순히 현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재의 남한 당국만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국통일사상과 노선, 방침에 대해서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제는 남조선과의 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고착되었다고 판단하고, 남조선과 통일문제를 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통일전선부 등 대남사업 조직에 대한 개편을 예고하였으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까지 언급하며 전쟁과 적화통일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북한의 강경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일은 불변의 주적과 무력통일, 핵전쟁 불사를 명료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김일성 시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의 유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북한의 노선 변화와 강경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어떤 대화나 화해, 인도적 교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핵 무력 증강 계획과 함께 핵 무력을 통한 영토완정 등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연사가 이어진 만큼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이나 각종 테러 및 공작 강화, 더 나아가 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북한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북한에게도 전쟁은 자멸의 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sup>1</sup>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를 2024년 11월에 있을 미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한다. 미 대선 이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위협 감소를 일차적 목표로 하는 군비통제적 접근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오경섭(2024)은 북한

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핵군축론이나 핵비확산론을 올리게 만들어야 하는데,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국과 한국의 북핵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북한이 한반도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을 일으켜 정세 불안을 유도하고 미국과 한국이 핵군축론과 핵비확산론을 꺼낼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sup>2</sup> 현재 중동이나 러우전쟁 등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앞으로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및 각종 공작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언제나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원곤(2024)<sup>3</sup>, 손효종(2024)<sup>4</sup> 등은 새로운 대남노선이 가지는 의미 중 하나로 대남 핵공격의 정당화 또는 선제공격의 문턱(threshold)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한다. 남조선을 동족관계가 아닌 독립된 주체이자 타자로 규정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타격은 적대관계에 놓인 교전국에 대한 핵 사용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2024)는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 위원장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미국이 국제지형의 변화 가운데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도 군사적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5</sup>

## 북한의 디리스크잉(De-risking) 전략

이러한 전쟁 발발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이번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는 북한이 핵 개발에 매

1 ‘북한 전쟁할까’ 외신 관측 분분... “한미 선거철 도발일 가능성”, 연합뉴스 (24.01.22.)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2091800009>>

2 오경섭(2024),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 노선 전환 의도와 대응”,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01 (2024.01.02.), 2-3.

3 박원곤(2024), “다중고에 직면한 2024년 북한”, 동아시아연구원 EAI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한국외교 2024전망과 전략②(2024.01.17.), 9-10.

4 손효종(2024), “전원회의 결과 분석과 2024년 북한 정세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KIDA ROK Angle 제 269호 (2024.01.15.), 4.

5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2024.01.11.)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진해 온 30여 년 동안 핵을 이용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했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인해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전원회의 결과도 그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실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변

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한과 서방세계에 대한 거의 모든 교류 활동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 백신 지원 등 단순한 인도적 지원 활동도 거부하였다. 내부 사상 통제는 극도로 강화되었으며, 국가 계획 중심의 경제를 다시 강화하고 시장을 국가가 장악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이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꾸준한 경제성장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던 것을 생각하면 최근 북한의 행보는 그 바탕에 분명한 노선 변화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 김일성 대학 출신의 북한 전문가 뢰디거 프랑크(2023) 교수는 북한의 지배층이 자신들의 통치에 위험요소를 줄이는 디리스크잉(De-risking)전략을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sup>6</sup> 여기서 위험요소는 시장경제의 발전, 외국과의 교역 증가, 개성공단 등 특별 경제 구역의 운영, NGO 활동의 허용, 그 외 여러 해외 국가와의 교류 확대 등이다. 언뜻 보아서는 이런 활동들이 왜 위험요소인가 싶겠지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사상적 순수성을 해치고, 외부의 영향력이 흘러들어오고 북한 내부 정보가 유출되며, 체제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요소들인 것이다. 뢰디거 프랑크는 북한 지도부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불가피하게 이러한 위험요소를 수용해왔고, 2009년 화폐개혁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없진 않았지만 이러한 방향을 전환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17~18년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한 대외 교역 제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코로나 대유행 발생은 북한 지도부에게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

거할 ‘황금 같은 기회’(golden opportunity)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뢰디거 프랑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이 어렵게 줄여놓은 위험요소가 다시 증가할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즉 북한 내 국제기구 활동이나 서방세계로부터의 관광객 유치 및 서방국가와의 외교적 교류는 중단되거나 최소화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와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북한이 남조선을 적국으로 표현한 만큼 한류 문화에 대한 사상 통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이 디리스크잉 전략을 유지한다면 경제 부분에서 민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경제개혁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 이번 전원회의 결과발표는 대외 노선 뿐 아니라 경제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북한은 작년 한 해 알곡생산이 증가하고 2020년 기준으로 국민 총생산액이 1.4배 늘어났다고 그 성과를 강조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은 코로나 대유행의 여파로 북한 경제가 -4.5%의 역성장을 기록한, 최근 10년간 경제사정이 가장 좋지 못했던 해이다. 2020년과 비교해 1.4배의 국민총생산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실제 경제 개선으로 볼 수 있는지, 북한 당국이 자랑하는 경제적 성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드리기엔 의문점이 많다. 2023년에는 비교적 좋은 기후 조건으로 식량 생산이 소폭 증가하고 북중 교역 재개로 경제 상황에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민생 경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 어떤 건설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 북한이 말하는 신냉전 구도와 그 한계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와 무기개발 및 도발적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북한이 강조하는 동북아 신냉전구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의 추가적인 제재와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미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자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더해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통해 노동력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및 각종 식량과 연료를 공급받고, 군사적으로는 첨단 기술의 도입과 대북제재 회피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sup>6</sup> Ruediger Frank(2023), “North Korea’s De-risking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38North (2023.12.13.)



다만 북한이 강조하는 것처럼 북중러를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하나의 블록으로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이상근(2023)은 중국이 러시아·북한과의 삼각협력, 특히 군사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도 양국 간 경제교류 규모나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입장으로 미루어볼 때 한반도 정세를 바꿀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sup>7</sup> 김홍규(2023)는 북한이 신냉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자강’이며, 중국에 대한 경제·정치적 예측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보았다.<sup>8</sup> 실제로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동맹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강력 강화를 외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불편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체적인 핵과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자력갱생을 외치는 가운데 국경 통제를 강화하여 코로나 대유행 종식 이후인 현재까지도 이를 일정수준 유지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작년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도 북중러 삼국의 협력 관계 강화보다는 북한의 시계주 외교를 통해 중국에게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추가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sup>9</sup> 박원곤(2024)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행보를 과시함으로써 중국에 압력을 가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시계주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의 북러 밀착과, 미중 갈등에서 북한을 ‘자산’으로 삼는 중국의 행태는 협력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sup>10</sup>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특별히 중국이 가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게 거론되어왔다. 하지만 변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북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왔던 수십 년간의 대북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이정철(2024)은 “북한 스스로가 자강노선에 근거해 선택적 결핍과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과거 6자 회담과 같은 북핵 문제 접근법은 불가능해진 현 상황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해법은 갖지만 새로운 해법은 오고 있지 않은 과도기”로 진단하였다.<sup>11</sup> 앞으로 북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더 많은 고민과 지혜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 우리의 기도

북한의 대남, 대외 노선 변화와 군사 도발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다. 특히 남한을 적대국으로 지칭하는 모습에서 우리 측에서의 어떠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쉽지 않을 것임을 느끼게 된다. 다른 어느 해 보다도 한반도의 상황이 답답하고 긴장스럽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신냉전 구도를 활용하며 자신들의 핵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변수가 될 만한 요소들은 여럿 존재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러우 전쟁이 어떤 모양으로 종식되고 그 후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11월 미 대선에 양상이 어떠할지 등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변화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우리는 먼저 남한을 타겟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이 실패하도록,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도록 기도해야 할

7 이상근(2023), “2024 북한의 정치와 안보 전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 80차 통일학세미나 자료집, 47.

8 김홍규(2023), “북·중·러 밀착의 현재, 동인, 그리고 전망”, 경남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IFES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65-86.

9 앞의 글, 76.

10 박원곤(2024), 위의 글, 8.

11 이정철(2024), “2024 북한의 대외 정책 전망”,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공동 주최 토론회 ‘2024년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전망’ 자료집, 24.

것이다. 이미 북한은 1월 한 달 동안 해안포 사격,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 등 굵직한 군사 도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해서 상당한 수위의 군사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자 하는 가운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준에서 강도 높은 무력 충돌과 그로 인한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각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남북 간에 불필요한 피흘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보유 인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북한이라는 국가가 소수의 지도자와 엘리트만을 위한 국가가 아닌, 그 구성원인 주민들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

## 칼럼 1

# 2024년 북한정세 전망

양운철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강서대학교 초빙교수)

## 제9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개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코로나 회복에 기대가 큰 북한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5일 동안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우선,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넘어서 극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김정은은 남북관계가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평가했다. “남조선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였다. 대남 기구의 정리와 개편도 언급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헌법에 국가 핵 무력 정책을 포함시킨바 있다. 당시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헌법에 명시했다. 이는 향후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같은 논의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김정은은 2023년 9월, 러시아 우주 시설을 방문했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북한은 2개월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했고,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일부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과학기술 협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러시아 간

의 경제협력도 강화되어, 향후 북러 경제관계는 규모면에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한 변수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의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크게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제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

2024년 1월 15일 개최된 북한의 제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미국의 대결 정책과 대한민국과 같은 노예 국가들의 망동으로 군사력 강화 명분과 핵전쟁 억제력 제고의 당위성을 제공해 주어, 전쟁준비 완성과 무장 장비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전인민은 군사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전민 항전으로 대사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쓰라린 북남관계사의 최종결론은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꿈꾸며, 대결 광증 속에서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고 성토했다. “북남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는 현실은 대한민국이 자멸적인 대결 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현주소”라고 한국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인민들의 생활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북한은 사용하지 않던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국의 오판과 정책 실패로 벌어진 모든 상황을 한국의 잘못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내부 독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강력한 대남 비방은 결국은 체제경쟁에서 뒤진 스스로에 대한 초라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의존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군사비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이전된다.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북한은 내부적으로 삼대 세습독재체제 강화와 함께 북한 주민들 탄압하고 있다. 핵을 포함한 자국의 국방력 강화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미국의 대결정책과 대한민국과 같은 노복(奴僕) 국가들의 망동”이 북한에 “군사력 강화의 명분과 핵전쟁 억제력 제

고의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준비와 무장 장비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과업”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자신감에 찬 호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북한이 자체 내부자원만 가지고 군사력을 강화하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경제성장에 성공하더라도 군사부문과 경제부문은 상충관계(trade-off)로 인해 동반 성장은 매우 어렵다. 이는 모든 국가 경험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경제기초가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군사력 강화보다는 경제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낙후된 산업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의 개선으로 경제 기초를 다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사력 강화에 투입되는 재원을 국민의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월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시정 연설을 하는 김정은〉

## 시장과 계획의 힘겨루기

경제와 관련해서는, 2023년 북한경제는 코로나 사태 봉쇄에 따른 침체를 벗어나 완전한 성장세로 접어들었고, 2023년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약1.4배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북중 무역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약 8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무역 총액은 약 16억 3천만 달러 정도로 동 기간 대비 약 83%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sup>1</sup>

식량 생산과 관련해서, 2023년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경봉쇄가 일부 해제되고, 북중 교역이 진행되어 비료를 포함한 농사에 필요한 자재 수입 증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추정된다. 쌀 생산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로 쌀값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sup>1</sup> 이승열,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4년 남북관계 전망,” 이슈와 논점 제217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1.19. 참조.



알려지고 있다. 2023년 11월 DailyNK 보도에 따르면 북한 지역 평균 쌀 가격은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9% 가량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경우 쌀 생산량이 높지 않았고 수입도 제한되면서 시장에서의 쌀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20023년 북한 경제의 특이한 사실은 2023년 10월부터 식량배급의 국정 가격과 기업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이다.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일부 공장 근로자의 월급은 2,300원에서 5만원, 최대 10만원까지 인상되었다. 주 이유는 장마당 가격과 국영가격을 같게 하는 목적이라고 추론된다. 그러나 2002년 7·1경제 조치 때처럼 상품의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처럼, 확실한 식량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한 쌀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은 시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장마당에서 식량 판매를 금지시키고, 국영 양곡판매소를 설치해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쌀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소는 식량 선택의 폭이 적고, 약품과 같은 필요 상품을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부터 결재 수단으로는 전자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sup>3</sup>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은 계획경제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다양한 상품 거래를 넘어 사금융과 부동산 거래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거의 중단되면서 북한 시장에 필요한 상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파산했고 거래시장이 폐쇄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국가는 시장을 억제하고 모든 상품의 공급을 국가기관을 통해 공급하려 한다. 그러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급증가 없이 통제만으로 물가를 억제할 수는 없다. 계획에 따른 상품의 공급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가져와 물가의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 동시에 심각한 실업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노인들은 시장에서 일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다. 시장의 위축은 시장 인력의 감소와 구매력 감소를 가져와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난이 발생할 수 있다.

2 DailyNK, “北 쌀값, 해산선 보름만에 7.1% 하락…평양·신의주선 상승,” 2023년 11월 16일.

3 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의 장마당 무력화 조치 (1)카드를 사용하라,” 2024년 1월 11일.

## 2024년 전망

앞서 서술한 것처럼 2024년 들어 북한은 강력하게 한국을 비난하고 있고, 군사력 사용 의지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도발은 결국 대규모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한미 군사력과 북한 군사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도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북한의 도발은 소모전(war of attrition)의 양상을 지니게 되어, 경제력이 약한 북한은 단기간에 재원을 소진하여, 전쟁의 승패 결과는 자명해진다.

일반적으로 1분기에 한국과 미국 간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전개된 사례를 감안할 때, 2024년 1분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만약 2024년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3국 군사훈련이 전개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 미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은 외교적으로도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북한 군사력 강화의 역설적인 면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는 북한의 미국과의 관계 정립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반면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와 자력갱생의 주요 동인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다.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보면 북한의 핵, 미사일, 기타 도발은 Bush대통령 시절에는 1년 평균 3.5회, Obama대통령 시절에는 1년 평균 10.88회, Trump대통령 시절에는 10.25회, Biden대통령 임기 중에는 현재까지 30.33회를 기록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 공화당 정부와의 관계를 선호하는 듯하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북한은 미 공화당 후보의 선출을 기대할 것이다.

2024년 북한은 경제회복에 집중하여 주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2천 6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북한 인구를 감안하면 매년 플러

〈북한이 1월 24일 시험발사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조선중앙통신)〉





스 성장을 달성해야만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시대착오적인 자력갱생에서 벗어나 전 세계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은 새로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제 원리에 맞는 전향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것이 빛나간 북한경제의 궤도를 수정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4년에도 계속될 북한주민들의 힘든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게 된다. 그들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 북한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려는지, 북한 정권이 저지른 죄의 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의 북한에 대한 교만함 때문인지 등 여러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역사 전개과정은 인간들의 생각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를 여러 번 목도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이나 독일통일과 같은 역사가 한국에서도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한국교회의 선교 비전과 역사적 사명을 더욱 잘 깨달을수록 모두가 원하는 통일도 달성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을 위한 간곡한 기도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상이나 전략적 마인드보다 더 귀한 지혜를 저희에게 주신다면, 한반도는 한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

# 2024년 북한 전망

오 일 환 (사랑글로벌아카데미 교수)

2024년은 한국과 미국이 정치의 해다. 한국엔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엔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선 대남·대미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정세조작을 시도할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인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7차 핵실험이나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4월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무력도발, 무인기 도발, 온라인을 통한 유언비어성 가짜뉴스의 유포 등도 예상된다. 특히 3월 중하순부터는 정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북한은 이 훈련을 의도적 긴장 조성을 위한 도발의 호기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긴장 조성을 통하여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체제결속과 주민 총동원 구축,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한 북·중·러 3각 협력 강화, 대미 협상 유도 등을 노릴 것이다.

## 대남정책 전망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근본적인 노선 전환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남북한 관계를 ‘두 국가 관계’라고 천명한 것이다.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 사항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제8기 제9차 당전원회의 결정 관  
철 선전화 (통일뉴스)〉

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폐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의 조선’을 일관되게 외쳐온 북한이 왜 갑자기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일까?

또한, 김정은은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며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

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외세와 야합해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못 박았다. 이는 남한의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이든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이든 ‘대북 적대 정책’이고 흡수통일정책이기 때문에 남한과의 통일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은 그 연장선에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는 대책도 지시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포기했다는 말인가. 그럴 리 만무하다.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고정간첩들과 통전세력을 통해 남한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획책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또 지난 1월 1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호칭한 것은 동족이 아니라 ‘두 국가론’에 입각하여 남한을 ‘적대국’으로 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동족이 아닌 만큼 핵 공격도 가능한 ‘주적’임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은 일방적으로 남북관계를 대결 구도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

치 않다는 심리상태를 드러내 보여준다. 남북한 간의 국력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짐으로써 남한으로의 체제 흡수통일을 우려하여 아예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킴으로써 대남 동경심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이후 더욱 악화된 경제난으로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식 흡수통일인 무력 적화통일을 당연시함으로써 혹시 모를 대량 탈북을 예방하고자 내린 조치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북한 경제 전망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30일 전원회의를 결산하는 5일 차 회의에서 국내 경제에서 거둔 성과를 강조하며 2020년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달성할 것을 독려했다. 그는 “2024년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라며 “2024년 말에 가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5개년 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해(2024년)부터 당 대회 결정 관철에서 미진되고 있거나 걸림돌로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어 지금까지의 성과가 더욱 확대되고 은을 나타내게 하며 계획한 모든 과제들이 빛나는 결실로 전환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지난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 경제 계획의 4년 차를 맞아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미흡했던 부문을 해결하는 데 신경을 쓰면서 기존 계획을 착실히 완수하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김정은은 또 2024년도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적인 행정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내각이 경제발전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 운수 등 기간공업 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중점 과제를 세세하게 제시했다. 또한, 수도 건설, 농촌 살림집 건설 등도 더 박력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집권 이후 강조해온 인민 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건설 분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은 농업 생산력을 지속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며 밀 생산량 증가에 부응하여 여러 지역의 밀 가공 공장 현대화와 밀 가공 기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진보와 국가의 전면적 부흥 촉진



을 위한 중요 목표 제시하는 한편, 교육 내용 방법의 구체화와 실용화 방안,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체육 부문의 성과 확대 등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1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는 올해 지출을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현시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어려워진 총체적 경제난에 따라 주민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내려진 결단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년 내내 민생안정을 위해 자력갱생을 경제선동 구호로 삼을 것이다.

2023년도 대외경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내려졌던 국경봉쇄를 해제하면서 북·중 무역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러시아와도 지난 9월의 북·러 정상회담 개최 이후 경제협력이 재개되었다. 2024년에도 북한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무역의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복세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북·중 및 북·러 관계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활로를 열고자 할 것이다. 중국과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러시아와는 해외노동자 파견 규모를 확대하면서 최대한 외화를 확보하며 필요한 물자를 반입하려 할 것이다. 해외 공관의 외교관을 통한 마약과 무기 암거래를 통한 ‘대담한 외화벌이’를 비롯하여 해킹을 통해 가상화폐 탈취도 강구할 것이다. 물론 가상화폐 탈취는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 감시 강화로 과거처럼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년 들어 북·중 간 교역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7일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의 하오펑(郝鵬) 서기 리러청(李樂成) 성장, 랴오닝성을 방문한 왕야쥔(王亞軍) 주(駐)북한 중국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랴오닝성은 중·조(중국과 북한) 교류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신년 축전을 통해 올해를 중·조 우호의 해로 선포하고 일련의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랴오닝성은 중·조 수교 75주년과 중·조 우호의 해를 맞아 대북 교류 협력을 착실히 전개해 양국 전통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하게 유지,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국가 외교 사업 발전에 힘을 보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금년 중 북·중 간의 경제 교류·협력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북·러 교류·협력의 경우 지난해 9월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연이은 러시아 정부대표단의 방북이 이뤄지면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진전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러시아는 정부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해 무역, 경제, 과학기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등 북한과 밀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올레그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이 북한의 대외경제성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여 관광·통상·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제마코 주지사는 “연해주는 북한 농민들에게 농업용지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방문에서, 러시아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에도,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추측된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여전히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건설사 최소 2곳이 러시아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up>1</sup> 문제는 값싼 북한 노동력에 대한 현지 수요가 있는 한 북한은 어떻게든 노동자를 파견할 것이다. 해외노동자 파견이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탄약과 폭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대량으로 불법 거래될 것으로 예측되며, 반대급부로 핵 능력 고도화 기술 전수 외에도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원유와 식량 등을 공급받을 개연성이 크다.

북한은 금년에도 자력갱생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중·대러 관계 강화를 통해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경제 성장은 답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 북한경제는 침체의 수렁을 벗어나기 어렵다.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제한되고 시장에 대한 통제가 계속되는 한 자력갱생의 구호만으로는 결코 경제난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sup>1</sup> 국정원 “北,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 움직임 포착”, 조선일보 온라인 (2023. 12. 13.),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12/13/7XAH74K7PBCNBCKHLMF3EB45M/>>



〈1월 15일 방러한 북 최섉희 외무상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북한은 연초부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조선중앙TV)〉

## 북한 사회 전망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상방역법’(2020년 8월 22일)을 제정하여 사실상 국경 봉쇄를 단행했다. 이 법은 최고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정도로 강력한 법이다. 또한 북한은 내부 통제를 위하여 이른바 ‘김정은 시대의 3

대 사회통제 악법’이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12월 4일),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9월 29일),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1월 18일) 등의 법 제정을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이들 악법은 여전히 작동하며 철저히 주민 통제에 이용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 사실상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특히 한국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고, 시청하면 징역 5년에서 15년까지 부과하고 있다. ‘청년교양보장법’은 북한 당국이 청년들의 사상적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을 철저히 단속하고 이를 위해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을 의무화하고 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남한식 말투를 따라 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한국 말투나 한국 서체를 사용하는 자들이나 배워주거나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는 중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악법들은 어떻게든 남한에 대한 주민의 동경심을 차단하고자 한류 문화의 확산을 막아보고자 하는 궁여지책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월 17일 함경남도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26일 저녁 평양~금골행 열차가 함경남도 단천 일대에서 높은 고개를 넘으려다 전기 부족으로 뒤로 밀려 탈선 사고가 전복돼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기관차 바로 뒤에 연결됐던 두 개의 상급 열차는 탈선되지 않고 단천역까지 밀려 내려와 정차하면서 상급 열차에 탔던 간부들은 살았고, 나머지 7개의 열차에 탔던 주민들은 대부분 사망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북한의 중심 교통수단인 철도는 80%가 전기로 움직이는데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넓은 데다 보수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사고 소식을 차단한다 할지라도 이 소식이 북한 전역에 널리 알려질 경우 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월 2일 ‘2024년 통일부 시무식’에서 “3대 세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고 장마당에 참여하는 북한 여성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사회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어려워진 민생고로 인해 불만이 누적되면서 김씨 3대 세습체제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풍조는 김주애의 후계자 구도가 확실시되며 4대 세습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경우 더욱 확산될 것이다. 장마당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점차 시장 원리에 눈을 뜨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이 금년 초부터 북한주민의 대남 적개심을 부쩍 고조시키고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은 내부 단속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아무리 정보를 차단하고 사회를 통제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시작된 변화의 물꼬를 틀어막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북한의 무력시위나 허세에 부화뇌동하기보다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까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한류 문화 콘텐츠의 북한 유입에서 보듯이 복음이 북한 전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음만이 북한을 변화로 이끌어 우리가 원하는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 2024년 ‘김정은 조선’의 선택은?

최 경 희 (사) SAND연구소 대표)

2024년 새해 첫날 북한 노동당 일간지 노동신문 1면에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가 오른편, 내각 총리 김덕훈과 노동당조직비서 조용원이 왼편에서 나란히 신년경축대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담았다. 또 이 공연을 중개하는 조선중앙TV에는 ‘김정은 조선’이 처음 언급되었다. 과거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을 주장하던 김정은 정권의 통치방식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정은은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3.12.26.~30)와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2024.1.17.) 시정연설을 통해 남한을 한민족이 아닌 적국으로 규정하며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를 지시했다. 1월 5~7일 연이어 서북 도서 북방 일대에서 포격 도발을 강행한 데 이어 북한 미사일총국은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성공을 자축했다. 그리고 10일만인 24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한미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되었다.

북한은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했던 대남기구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기구가 운영해 온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송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양방송의 홈페이지인 ‘민족대단결’도 접속 불가능 상태이다. 김정은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평정하겠다고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1960년대부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방송을 송출했다. 과거 자정에 김일성·김정일 찬양가를 내보낸

뒤 난수(亂數)를 읽어 남파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렸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난수 방송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했다가 2016년에 다시 재개했다.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2024 신년경축대공연'을 관람한 김정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대남정책 전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 부문 일군(간부)들의 결기 모임이 12일에 진행됐다”며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우리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한국에도 각각 남측위원회와 남측 본부를 둔 단체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노동당 외곽 단체이며 한국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교류해 왔다.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민족의 정통성과 통일을 다뤘은 단체다.

앞서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이라고 못을 박고 대남기구 정리를 지시한 이후 북한은 최섉희 외무상 주도로 대남기구를 정리,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이번에 정리된 대남 교류 기구들도 아예 폐쇄되거나 외무성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대남 심리전과 통일 공작 등을 담당했던 통일전선부가 외무성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편 북한 국가 도메인(.kp)을 이용하는 대외 선전 웹사이트 ‘내나라’에서는 통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던 ‘우리는 하나’ 코너가 사라졌다. 닷컴 도메인을 쓰는 우리민족끼리·통일의 메아리·류경·조선의 오늘·려명 등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들도 지난 11일부터 접속 불가 상태이다.

이렇게 단행하는 북한의 대남기구 정리 및 대남정책의 전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이 정리한다고 밝힌 대남기구들은 1990년대 이후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생사의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 및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민족 개념을 내세워 남북교류에 관여해 온 노동당의 ‘외곽단체’들이다. 이러한 대남기구를 통해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기반한 ‘생존을 위한 평화전략’에서, 이제는 ‘핵무력 우위에 선 대남압살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의 ‘1민족 1국가’론에 근거한 남한 해방전략과 달리 김정은은 대한민국 타자화를 통해 ‘2민족 2국가’로 남한의 영토를 평정하는 무력 통일 기조를 명분으로 사실상 ‘김정은 조선’ 지키기에 집중하려고 한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대사변 준비’를 예견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줄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언의 수위는 강한 공격성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의 행위는 수세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 투쟁을 통해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하고 남한문화나 자유의 가치가 북한 사회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자기 방어기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류 문화 유입으로 형성된 북한 주민들의 대남 환상을 뿌리째 말살하겠다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법” 등 각종 법을 채택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김정은이 딸 주애를 상징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남북교류를 단절하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세대에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수세적 대응의 한 표현이다.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성과 중에 가장 자부할 만한 분야가 과학기술 성과, 우주과학기술분야, 그리고 정치사상적 위력이라고 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기 전인 2011년 12월 28일 노동신문 정론 ‘김정일동지의 혁명유산’에서 주장했던 ‘핵과 위성’,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이라는 3대 혁명유산이 변질된 결과물로 평가된다.<sup>1</sup> 3대 유산 중에 선대가 남긴 ‘핵과 위성’은 김정은 정권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기에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오늘날 과학기술 성과라고 하는 ‘새 세기 산업혁명’은 지식경제의 첨단기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사회문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는 성공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선대가 남긴 ‘민족의 정신력’이라는 유산은 최근 들어 한민족을 부정하며 정치사상적 위력이 강력한 ‘김정은 조선’으로 한정하

고 있다.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 사설에서 민족의 영원한 태양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찰해야 한다며 조국통일 유훈을 절대시 했고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김정은 동지가 서계신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소환해보면, 결국 북한은 ‘김정은 조선’의 유지를 위해 핵개발에 집중하며 선대의 유훈을 버리면 서 반쪽만의 성벽을 쌓는 수세적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다.

2022년을 유례없는 ‘건국 이래 대동란의 해’로 표현할 만큼 최대의 극빈곤의 상태였으나 2023년은 “국력제고와 국위선양에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김정은에 의해 규정되었다. 경제와 외교를 희생하면서 핵미사일을 개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부분을 자축하며 2024년에는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며 내부결속을 다지고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핵무력 및 국방력 강화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4월 대한민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른바 ‘조국해방 80주년’, ‘당창건 80주년’을 맞는 해이다. 늘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은 시나리오에 맞는 시간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대내외적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2024년 들어 한층 더 강경한 표현인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언급한 만큼, 향후 어떤 형식으로든 한반도 긴장 조성에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 조선의 군주제, 또는 ‘혈통제도화’를 위해 대내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향력과 내부 유입 경로를 차단하며 한미일 협력체계를 분리하여 한국의 힘을 빼는 데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의 국지전 발발 가능성과 오판과 오발로 인한 충돌 가능성이 항시적으로 상존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sup>1</sup> 3대 ‘혁명유산’은 허구성이 내재해 있지만, 북한이 자랑스럽게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 초기 선대에게 넘겨받은 과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오늘의 현실을 읽을 수 있는 단서이다.



#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제 2화

지 한 나 전도사

드르르르 드르르르...

육중한 크기의 무시무시한 전거리 교화소의 커다란 철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북한 공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교화소에서 들어가자마자 나의 머리를 뽀뽀 깎았고 누더기를 기어붙인 짝짝이 옷을 입어야 했다. 그리고 수감 생활 3년 내내 이름이 아닌 죄수번호로 불리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존중을 기대할 수 없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교화소 생활은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화장실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었다. 하루는 교화소 길 옆에 산이 세 개나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눈도 안 오는데 무슨 산이 저렇게 있는지 궁금해 물었다. 그랬더니 그것이 ‘뼈 산’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죽어서 뼈가 쌓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믿겨지지 않아서 가까이 가보니 정말 사람의 붉은 뼈들이 쌓여 있었다. 어떤 사람들의 뼈인지 물으니 이곳 교화소에서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 너도 죽으면 여기에 오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너무 무섭고 낙심이 되었다. 내가 죽으면 땅에도 묻히지 못하고 여기 이 산이 되겠구나... 태어나서 이리 살다 죽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숨이 나왔다.

교화소 생활은 참으로 열악했다. 돌이 섞여있는 강냉이밥 한주먹과 썩은 양배추 국 같은 것이 우리의 한 끼 식사였다. 음식은 소금 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소금을 먹으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도망을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수감자들은 일하러 갔다가 산에서

솔잎을 뜯어오기 시작했다. 그 솔잎을 손에 비비고 돌에 찌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밥에 넣어서 먹었다. 조금이라도 먹는 양을 늘리려는 고육지책이었지만 소화가 잘 안되다 보니 변비에 시달렸다. 교화소 수감자들 너도 나도 변비가 와서 제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고통스러워하는 서로를 위해 서로의 대변을 나무 꼬챙이로 파주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또 치질로 고생 깨나 하기도 했다.



〈삽화=휴먼라이프워치〉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보니 몸이 아파도 약을 쓰지 못하고 맨몸으로 버텨야 했다.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 날씨 탓에 열사병이 창궐해도 그것에 맞설 방법이나 약이 없었다. 다들 열병으로 고생하고 허약(영양실조)<sup>1</sup>이 와서 고생을 하는데 나는 걸리지 않아 약종이란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출소 만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나는 그만 건강이 악화되어 허약에 걸려버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몸무게가 27kg까지 줄어들었다. 몸에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 다녀야 했다. 허약자 옷을 털고 소독한다고 벗으라고 해서 옷을 터는데 옷에서 쌀알만 한 이가 툭툭 떨어져 나왔다. 옷에서뿐 아니라 몸에서도 살이 곰보처럼 울퉁불퉁 해지고 쌀알만 한 이들이 튀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하던데 내 몸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때 같이 수감생활을 하던 한 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한나야 너 살고 싶니?” “언니, 살고 싶어... 내일 모레가 출소인데 살고 싶어.”라고 했더니 언니가 따라 오라고 했다. 따라가 보니 그 곳은 죽은 사람들을 두는 사체실이였다. 사체실 앞에는 나처럼 허약에 걸린 사람 7명이 앉아있었다. 저기 앉아서 무얼 하나 봤더니 사체실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언니는 내게 살고 싶으면 구더기를 먹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sup>1</sup> 북한 교화소에서는 허약도를 측정하는데, 바지를 벗겨 놓고 엉치사이의 넓이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엉치가 약간 벌어지면 허약 1도, 엉치넓이가 주먹을 세운 것이 들어갈 정도이면 허약 2도, 넓힌 주먹이 들어갈 정도이면 허약 3도이다. 허약 3도의 경우 생존 확률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먹지 못했다. 그런데 구더기를 먹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허약이 퇴치되었다.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교화소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고단백 음식 물이 바로 구더기였던 것이다. 내가 도저히 그 구더기를 먹지 못하고 여전히 허약으로 힘들어 하자, 다음 날 보안원이 나를 산으로 끌고 가서 뱀을 잡아 꺾질을 벗기고 토막 내어서 구어 먹이기도 했다. 아무리 인간 취급 못 받는 죄 수라도 교화소 안에서 죽으면 이를 처리하는 일이 번거로운 모양이었다.

뱀 고기도 먹었지만 몸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고, 나는 감방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렸다. 감방 천장을 쳐다보고 있으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참으로 고생스럽고 한스러운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나를 왜 이 세상에 낳았는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놔둘 바에는 차라리 낳지를 말지. 내가 잘못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배가 고파서 중국에 갔다 왔을 뿐인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는 모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환기를 시키기 위해 문을 살짝 열었는데 날이 매우 좋았다.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맑은 하늘에 신이 있다던데,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그리고 신이 정말 있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드디어 출소 날이 왔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출소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3년의 감옥생활동안 나를 면회 온 가족이나 친척도 없었던 터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쓸쓸하기 이를 때 없었다. 마침 우리 고향에서 교화소에 수감될 죄수를 호송해 왔던 간부가 있어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인솔해갔다. 고향에 도착한 나는 먼저 남편과 딸의 집을 찾아 갔다. 그런데 이미 남편은 새장가를 가고 집도 이사한 상태였다. 당시 북한에서는 3년간 배우자가 부재하면 자동 이혼 처리가 되었다. 갈 곳이 없어진 나는 하는 수 없이 언니의 남편인 형부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언니는 이미 탈북해서 한국에 가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방에서 쉬고 있으려니 저녁 즈음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뚫고 보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사돈께서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가 영양실조로 며칠 못 가 죽을 것 같으니 쌀을 모으고 관을 짜고 장례식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내 상태가 심각해보였던 모양이다. 그렇지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장례식을 준비한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 나중에는 산사람을 묻으려 하지 않을까 겁

이 났다.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집을 몰래 빠져나와 엄마 집을 찾아갔다.

힘들게 엄마를 찾아가면서 생각했다. 엄마와 형제들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만큼 오랜 교화소 수감 기간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은 가족이 섭섭하고 분하고 속상했다. 어머니는 처음에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다. 너무 뼈뼉 말라 내 물결이 말이 아닌 탓이었다. 나는 엄마와 오빠들에게 내가 감옥에서 죽기를 바랬냐며 서러움을 토해냈는데 가족들은 내가 교화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시며 “나는 너를 이리 아이 나았는데 어찌 이 물결을 하고 나타났냐”며 한탄하 시고 슬퍼하셨다. 짧은 가족들과의 만남에 위로를 받았지만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다. 한 20일을 그 집에 머물렀지만 식량이 부족한 집안 사정이 눈에 뵈히 보였다. 나는 집을 떠나 아는 친구 집을 전전했지만 어디를 가도 먹을 것이 없었다. 결국 나는 이곳에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3개월 만에 다시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2011년 2월, 친구에게 두부 한 모와 계란을 하나 사달라고 부탁하고 소금과 농약을 챙겨 두만강 어귀로 갔다. 우리는 여행길을 떠날 때 계란 하나와 두부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 두부모와 계란처럼 매끈하고 안전하게 길을 지나가라는 일종의 미신이다. 농약은 혹시라도 잡히면 먹고 죽기 위해 챙겼다. 다행히 겨울이라 강물은 얼어 있어 전과 같이 빠져 죽을 위험은 없어 보였다. 조심조심 얼음을 타고 강을 넘어가는데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물 때문에 얼음 한 쪽이 녹아 있어 물에 빠지고 말았다. 다행히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고 끙끙대며 올라올 수 있었지만, 흠뻑 젖은 온 몸이 끙끙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렇게 추위와 싸우며 중국 쪽으로 넘어와 고향을 바라보니 불빛하나 없이 어두웠다. 이제는 다시 오지 못할 곳... 남편과 딸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나온 것이 가슴 아프고 고향을 아주 떠난다는 것이 가슴이 아팠지만 침을 세 번 뱉고 가지고 온 소금을 뿌리면서 죽어도 다시는 여길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길로 나는 중국의 가족을 찾아 갔다. 그런데 남편은 딸과 함께 산둥성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다. 나는 이들에 걸쳐 기차를 타고 산둥으로 넘어가 마침내 남편과 딸을 만났다. 2살 때 떠난 딸이 이제는 6살이 되어 있었다. 몸이 상





할 데로 상해있던 나를 딸은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 피하려 했다.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피하는 딸을 보니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게 느껴져 딸을 붙잡고 통곡을 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기만 한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나는 다시 딸을 만난 기쁨으로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가 있던 언니와 연락이 닿았다. 내가 북송당한 것을 알고 맘 속 깊이 나의 안위를 걱정했던 언니는 그 험한 북송길에서 살아왔구나 하며 기뻐했다. 그리고 나에게 한국에 오라고 권유했다. 탈북자로서의 처지도 그렇고 내가 한국에 오길 바라는 언니의 마음도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나는 언니의 권유에 알겠다고,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자기를 버리고 간다며 우는 딸을 보니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산둥에서 3년을 더 살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중국에서 공산당의 큰 행사가 있다면서 집집마다 조선 사람을 잡기 시작했다. 이제는 도저히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시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주선해 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에서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라고 배웠던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다. 아무리 조국을 떠났고 체제의 모순을 피부로 경험했다고 하지만, 어릴 적부터 세뇌되어 온 주체사상은 여전히 내 속에 가득했기에 “하나님을 믿는 곳”의 도움이라면 안 받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급박해졌고, 결국 자존심을 무르고 그들을 통해 떠나기로 결정했다. (계속) 🐟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수령, 독재의 정석 - 비교정치로 알아채는 수령제의 내구성

저 자: 한병진

출판사: 곰출판

발행일: 23년 3월 23일

가 격: 18,000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맞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북한 체제가 머지 않아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에 유례 없는 3대 세습을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30대 초반의 젊은 지도자는 매우 불안해 보였지만, 북한 체제는 흔들리지 않았고 독재 권력은 성공적으로 유지되었다. 다른 나라라면 몇 번이고 나라가 뒤집혔을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체제를 유지하고 지도자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민들이 심각한 억압 속에서도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북한에서 민주화는 과연 가능한지 궁금증이 일기도 한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서점을 찾았을 때 눈에 들어온 책이 있다. 계명대 한병진 교수의 저서 '수령,

독재의 정석'이다. 북한의 독재 체제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북한을 단일한 개체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북한을 수령과 엘리트 그리고 일반 대중들로 구분하여 어떻게 그 내부에서 권력이 유지되는지를 탐구한다. 상대적으로 북한을 분석할 때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북한 내부의 정치적 역학 구조를 과거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공산주의 체제나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사회심리학이나 죄수의 딜레마 등 다양한 정치 이론을 동원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지점은,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비틀어서 설명하는 저자의 접근법이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 강력한 사상 교육으로 인해 세뇌되어 수령에게 충성을 바친다고들 흔히 이야기하지만, 저자



는 이것을 세뇌가 아닌 조정으로 이야기한다. 여기서 조정은 개개인이 다수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맞추어 이해가 강한 경우, 그 각자가 관찰하거나 예상하는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제대로 줄을 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총살형과 연좌제가 난무하는 심각한 리스크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원하지 자기 혼자만 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는 여론, 즉 공동의 기대나 지식이 공고할수록 사람들은 그에 따르게 되고 권력은 안정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공동지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설 새 없이 수령에 대한 충성을 외치고 또 그것을 광장에서 서로 확인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국가가 당연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공공재를 잘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주민들이 잘 살게 해야 나라가 든든히 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권력이 부여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말이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개념을 북한에 적용해서는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지도자는 인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투자나 노력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 북한 당국에게 군사적으로는 인민들보다 핵무기 등 첨단 무기가 더 중요하며, 경제적 수입도 주변국의 원조, 천연자원의 수출, 관광 수입, 해외 노동자 파견, 사이버 범죄 등 대부분 국가 밖에서 온다. 권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수령이 국가의 자원을 대중들을 위한 공공재 공급

에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또한 북한 체제의 내구성과 전쟁 위협에 대해서도 독특한 설명을 내놓는다. 세계 다른 천연 자원 부국에서는 독재자와 엘리트들이 비교적 허술한 국가 시스템 속에서 나라의 자원을 착취하곤 한다. 하지만 북한은 그러한 자원 같은 것은 별로 없는 대신 지배와 억압에 능한 강한 국가가 있다. 국가 그 자체가 수령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국가 시스템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다만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상대방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한다면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강경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수령과 엘리트, 그리고 엘리트들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다양하게 다루면서, 북한 지도자의 권력 획득과 유지 방식에 대한 저자의 가설과 분석을 담고 있다. 이 책이 설명하는 수령과 엘리트, 그리고 민중의 행동 양식이 북한의 행보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하는지, 또 어디까지 설명이 가능한지 등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한 덩어리의 북한이 아닌 북한 내부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심리를 풀어내는 저자의 식견은 흥미로웠고 의미있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 체제에 대한 관점을 넓히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책으로 소개해본다. ☺

## 북한, 대남 노선 변경... ‘통일’과 ‘민족’ 지우기 나서



〈최근 철거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북한이 새해부터 근본적인 대남 노선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은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를 포기하고 통일을 위한 각종 조직·기구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 위험을 강조하고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결과 발표에는 핵 무력 증강과 정찰위성 3대를 추가 발사하는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지난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

10차 회의에서는 '통일 폐기'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언급하며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북한은 '통일'과 '민족'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남 기구 정리 작업이 개시되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이 폐지됐고 평양방송을 비롯한 대남·대외 선전매체들의 명맥이 끊겼다. 또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이 철거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1월 19일 촬영된 사진에서 포착됐던 기념탑은 23일 오전 촬영된 영상에서 사라졌다고 철거 사실을 전했다. (참고: 언론 보도 종합) ☺

## 북한, 새해부터 연달은 군사 도발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고체연료 미사일 발사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새해부터 연달아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1월 5~7일 북한은 서해 북방 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사흘간 사격한 각종 포탄은 총 350여 발 가량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포탄 중 일부는 NLL 이북 7km까지 근접해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14일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나섰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음속의 5배(마하 5) 이상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하는 초고속 미사일로서 평양에서 서울까지 수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요격

이 어려운 위협적인 무기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 약 1,000km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북한은 1월 19일 담화를 내고 수중핵 무기 체계 '해일-5-23' 시험을 동해상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일'은 북한의 핵무인 수중 공격정으로, 일종의 핵 어뢰다. 핵폭탄을 탑재한 무인 공격정을 부산항이나 미 항공모함 등에 은밀하게 접근시킨 뒤 수중에서 터뜨려 '방사능 쓰나미(해일)'로 항구·항모를 타격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다. 핵 어뢰는 잠수함보다 작으면서 수중에서 장시간 은밀히 이동해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매우 까다롭다.

1월 24일에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저고도로 비행해 요격하기 쉽지 않아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순항 미사일 명칭에서 '31'은 전술핵탄두 '화산-31'형을 탑재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 북한, 러시아와 하마스 무기 공급 현황 확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의 잔해에서 발견된 한글 '지' 표기(위)와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다는 북한제 유탄발사기 신관(아래)〉

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러시아와 하마스 등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정황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최근 공개한 '우크라이나에서 기록한 북한 미사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북한제 무기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인 한글 표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를 향해 지난 1월 2일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잔해에서 한글 '지읒'(ㅈ)으로 보이는 손글씨 표기를 확인했다. 연구소는 문자·숫자 표기 외에도 미사일 잔해의 로켓 모터, 추력 방향을 조절하는 제트날개, 볼트 결합 양상 등의 형상을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KN-23 및 KN-24 사진과 비교 분석해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1월 8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북한제 유탄발사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글 표지가 있는 F-7 로켓유탄발사기(RPG)의 신관(포탄 기폭장치) 부품 사진도 공개했다. 이 외에도 VOA는 지난 1월 5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순항미사일 파편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VOA가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에는 미사일 엔진 덮개로 추정되는 철제 물체 위에 손으로 적은 듯한 '1025나'라는 글씨가 씌여 있기도 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 지난해 북한 해킹 활동 활발... 국내 공공기관 공격 80%가 북한발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1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 시도가 재작년보다 36% 급증했고, 공격 시도 가운데 북한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80%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신속하게 공격 목표를 바꿨다. 지난해 초반 김 위원장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자 국내 농수산 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8~9월 김정은이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자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설계자료를 훔쳤다. 10월에는 김정은의 무인기 생산강화 지시에 발맞춰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무인기 엔진 자

료를 수집한 사례가 확인됐다.

북한 해킹은 '피아 구분이 없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착하고 있는 우방국 러시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도 여러 차례 해킹을 시도해 미사일 기술 등을 절취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의 가상화폐 해킹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월 2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은 지난해 전 세계 20곳의 가상화폐 플랫폼을 해킹했다. 이는 2022년의 15곳을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데이터가 수집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해킹 조직이 20곳의 거래소에서 빼낸 가상화폐는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17억 달러에 달했던 2022년보다 금액면에서는 적은 수준이다. 체이널리시스는 "김수키와 라자루스 그룹 등 해커 조직이 대량의 가상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악성 전술을 구사하는 등 최근 수년간 북한 관련 해킹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1월 24일)

## 작년 입국 탈북민 196명... 절반 이상이 2030세대



작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96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9명은 2030세대(20대·30대)라고 통일부가 1월 18일 밝혔다.

탈북민 규모는 전년(67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제3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다 들어온 경우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중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 국경을 넘나들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신 지역은 양강도·함경도(70%) 등 북중 접경 지역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평양 출신도 25명(12.8%)이나 됐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입국한 평양 출신 탈북민 비율(2.5%)

을 크게 웃돈다.

탈북 동기로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22.6%)가 '식량 부족'(21.4%)보다 약간 많았다. 2020년 조사 때는 '식량 부족'(22.8%)이라는 답변이 '북한 체제가 싫어서'(20.5%)라는 답변을 웃돌았던 데서 바뀐 것이다.

작년 국내에 입국한 엘리트 계층 탈북민은 10명 내외로,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엘리트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일반적인 탈북민과 달리 별도의 시설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외교관,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을 말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엘리트 탈북민의 입국이 증가한 데 대해 "코로나 종식으로 최근 이들의 본국 복귀가 본격화됐다"며 "자유세계를 경험해 복귀에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본다"고 말했다. (참고: 연합뉴스, 1월 18일)

## RFA "북한서 연말에 열차 전복 사고로 수백명 숨져"



(자유아시아방송RFA 그래픽)


23년 12월 말, 평양에서 출발해 함경남도 검덕(금골)으로 향하던 여객열차가 전기부족으로 고개를 넘지 못해 전복되면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난 금골행 열차는 함경남도 단천역을 지나 동암역에서부터 리파역 사이 해발 700m의 높은 고개를 오르던 중이었다. 그러나 노후화된 철로와 전력난으로 열차가 뒤로 밀리면서 전복됐다고 한다. 당시 단천역 주변에는 폭설이 내린 상황이었다.

소식통은 “급경사가 시작되는 동암역부터 열차 속도가 느려지더니 리파역으로 올라가는 철로에 이르러 기관차 견인기 전압이 약한 탓에 헛바퀴가 돌다가 열차 전체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며 “기관사가 제동했으나 밀려 내려가는 열차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신평역 인근 산굽이를 돌 때 가운데

열차가 탈선하면서 열차 뒷부분 객차들이 산 밑으로 떨어졌고 계속해 동암역으로 가던 도중 연이어 열차가 탈선해 골짜기로 굴러떨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식통은 기관차와 기관차 바로 뒤에 연결된 상급 열차 2량은 탈선되지 않았지만, 뒤에 연결된 객차 7칸은 탈선하여 탑승객 중 다수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객차 7칸에 탔던 인원 규모는 4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상급 열차 칸은 주로 간부 등 특수계층이 이용하며, 객차에는 단천 검덕광산으로 집단 파견을 나가는 20대 청년들과 생계를 위해 장사에 나서는 주부들이 주로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고에 관한 북한 측의 공식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난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철도를 끼고 있는 도,시,군들에서도 철길 유지 보수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노력과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 철도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김정은이 직접 철도 운행 안전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정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에서 대형 철도 사고와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 RFA, 1월 16일) 

- 1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과발표를 통해 대남 노선의 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남한을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 2국가와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 온 통일에 대한 방침도 전면 폐기하였습니다. 북한의 강경한 노선 변화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대북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선 변화는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통해 남과 북이 다시 하나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새해부터 연말은 군사도발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은 올해 말 선거를 통해 출범할 새로운 미국 정권으로부터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올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군사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과 그로 인한 희생도 우려됩니다. 북한 지도부의 오판에 따른 전쟁 발생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의 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전쟁과 피흘림이 아닌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 3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방역 통제조치의 장기화, 한류 미디어를 포함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태 척결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법률과 강화된 단속 및 처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는 당국의 강화된 통제와 공포정치 속에 더욱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국으로 재정립한 만큼, 한류 문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도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비인간적인 억압과 통제, 그리고 과도한 형벌과 단속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의 인권이 아닌,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진정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보도된 데 이어 선교현장에서는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사건 및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사건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에 대한 억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혀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5 강제 북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10월 중국에서 6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아직 수감되어있는 1천여명의 탈북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송된 이들이 당



## 북한 기도 제목

할 강도 높은 심문과 처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큼니다. 강제 복종을 당한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독교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6** 북한 선교를 위한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정책 노선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의 NGO 및 국제기구의 활동이나 서방세계와의 교류는 재개되기 어렵거나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올해 북중, 북러 교류 협력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관광 사업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북한 선교의 사명을 러시아나 중국, 그 외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현지인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함께 담당해야 합니다. 북한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세계 각지의 교회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북한 선교로 동원하고 언어나 문화이해 등의 측면에서 돕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적 협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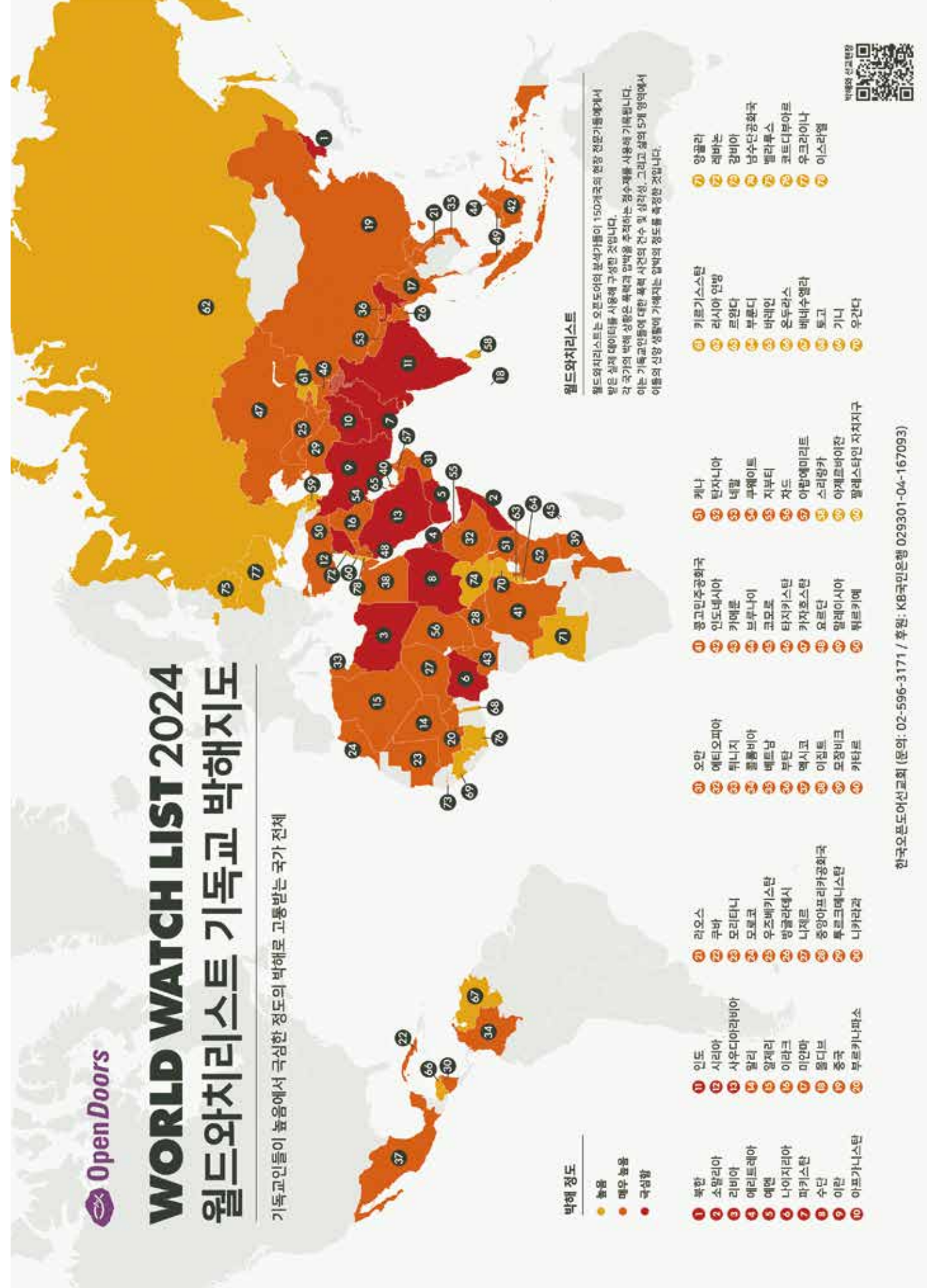
**7** 소외 계층 북한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겨울 추위는 남한에 비해 심하며 특히 북부 산악지역 등 소외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혹독합니다. 또한 북한의 겨울은 남한에 비해 더욱 오랜 기간 이어집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에너지나 난방 사정, 그리고 주거환경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합니다. 또한 빈부 격차에 따른 에너지 격차도 심합니다. 한반도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북한 서민들이 겨울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국경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담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새해를 맞아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방해전 등으로 인한 청취 장애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1월 31일





# 2024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기회인  
북한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주차	날짜	강의 주제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이해	1	4/8	북한선교와 한국교회
	2	4/15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이해
	3	4/22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경제와 장마당 이해
	4	4/29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사회와 문화 이해
	5	5/6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 교회사 이해
	6	5/14(화요일)	DMZ 기도회
북한 선교 현장 이해	7	5/20	북한 종교 박해의 실상
	8	5/27	국내 정착 탈북민선교 사역의 이해
	9	6/3	북한선교에 있어서 국제 협력 문제
	10	6/10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선교
	11	6/17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12	6/24	제삼국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13	7/1	제삼국 북한 여성사역 현장 이야기
	14	7/8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수료식
	15	7월 중	제삼국 비전트립

**시간** 2024. 4. 8 ~ 7. 8 매주 월요일 저녁 7:00 - 9:00

**장소** 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01호, 상봉역 부근)  
\*현장강의를 기본으로 하며 지방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강의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비** 15만원 (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접수** 2024. 2. 26 ~ 3. 29, 오픈도어 홈페이지(<https://www.opendoors.or.kr/>) - “이벤트 및 공지 사항”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 한아론 선교사 (010-5107-8448)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